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三島由紀夫의 『金閣寺』 論

-<父>를 통한 『金閣寺』의 새로운 고찰-



2008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駕 仁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三島由紀夫의 『金閣寺』 論

-<父>를 통한 『金閣寺』의 새로운 고찰-

指導教授 崔 蓮 姬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駕 仁

金駕仁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6月



主 審 尹 一 (印)

委 員 崔 蓮 姬 (印)

委 員 金 祥 圭 (印)

목 차

* Abstract	ii
I. 서론	1
1. 선행연구	1
2.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II. 본론	4
1. <父>의 존재	4
2. <父>의 <나약함의 힘>과 금각	11
3. 전후의 금각	19
3.1 전후의 현실세상	23
3.2 금각의 환영	25
4. 금각의 방화	29
5. 手記의 의미	44
5.1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서술방식	45
5.2. 読み手を 의식한 手記	54
5.3. 手記를 통한 「生きよう」의 의미	55
III. 결론	58
참고문헌	62

A Study on 『Kinkakuzi』 of Misima Yukio
-A New Study of 『Kinkakuzi』 is based on the view <chichi>-

Kim Ga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ompared with the real incendiary fire in the Golden Pavilion Temple (Keumkak Temple), "the father" is highlighted by intent in 『Kinkakuzi』. This study focused on "the father" considering it.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ole of "the father" was intimate because his father's role was limited to the messenger of the golden pavilion. They said that the golden pavilion was derived from internal doubts of the hero regardless of his father.

But they didn't noted that his golden pavilion and his father were separated from the bottom of his heart after he saw the real golden pavilion. After all, the hero recognized the beauty of it in view of the fact that his father's weakness made him feel strong.

The world of weakness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golden pavilion in view of the fact that his weakness made him feel helpless and he was protected by the world. And we recognized that the golden pavilion symbolized the world of weakness from the viewpoint of the fact that the author throw an image on <chichi> in the illusion of the golden pavilion.

So the incendiary fire there means the process of going forth into his inherent life out of the world of his father.

As a result, could the hero who set fire to it overcome the world of weakness? This study deals with an issue through the medium of the descriptive style.

It reveals that the author emphasizes that he has his own life style in the first descriptive style and he denies setting fire to it in the second descriptive style simultaneously. And I note that the author makes good use of the forces of weakness again in the second descriptive style.

Accordingly, the hero of 『Kinkakuzi』 can overcome the world of weakness by setting fire to it, but he can't overcome it in the real world as you recognize in the second descriptive style.

But the incendiary fir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barriers that he has to overcome to find out his unique life out of the world of his father. And his last confession-〈ikiyou〉 shows his will to live facing realty.



I. 서론

1. 선행연구

『金閣寺』는 1956년 『新潮』 1월호부터 10월호까지 연재한 것을 10월말에 新潮社에서 단행본으로 엮은 장편 소설로서, 1950년 鹿苑寺의 林養賢에 의해 일어난 실제 방화 사건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작품이다.

지금까지 『金閣寺』의 선행연구로는 一 内部와 外部¹⁾, 行動과 認識, 暗黒과 光輝²⁾, 私와 他者³⁾, 死의 經驗의 二重性⁴⁾ 등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金閣寺』-美の深淵」⁵⁾, 「『美神』論-〈美の恐怖〉」⁶⁾, 「美の召命」⁷⁾등 美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축을 이루어 왔으며, 美 자체를 하나의 예술⁸⁾로나, 神⁹⁾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었다.

한편, 이러한 연구는 보다 다양화 심층화되어 방화의 의미, 〈見る〉의 의미¹⁰⁾, 私의 여성 콤플렉스¹¹⁾뿐만 아니라 語り手¹²⁾, 작품의 문체상의 특징¹³⁾

- 1) 山原陸俊 「三島文学における〈内部〉と〈外部〉- 『金閣寺』を中心に」 『語文』 (大阪大学) 80・81, 2004
- 2) 藤井哲史 「暗黒과 光輝-三島由紀夫 『金閣寺』論」 『コンパレティオ』 1, 1997
- 3) 中野裕子 「『金閣寺』論-私と他者」 日本女子大学院学生会誌10, 1991
- 4) 湯浅博雄 「三島由紀夫 『金閣寺』を読む-死の經驗の二重性, 〈永遠回帰〉の兩義性」 『国文学』 45-1, 2000
- 5) 秋山公男 「『金閣寺』-美の深淵」 愛知大学文学論叢122, 2000
- 6) 永田満徳 「『美神』論-〈美〉の恐怖」 『方位』 22, 2001
- 7) 吉田達志 「美の召命-三島由紀夫 『金閣寺』の世界」 『静岡近代文学』 9, 1994
- 8) 西本匡克 「二元論的世界の構築」 『解釈と鑑賞』 57-9, 1992
- 9) 金美亨 「『金閣寺』における「美」についての考察」 『解釈と鑑賞』 65-1, 2000
- 10) 小平公子 「金閣寺」-「見る」ことの意味」 『目白近代文学』 7, 1987
- 11) 黄英珍 「三島由紀夫にみられる女性コンプレクスと自滅」 『日語日文学』 제10집, 大韓日語日文学会, 1998, pp. 309~322
- 12) 見城彩子 「障碍」と語り手の意図- 『金閣寺』論」 『文献探究』 43, 2005

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手記의 의미를 통해 『金閣寺』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작품의 마지막 종결어 「生きよう」의 의미¹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작품 속에서의 금각이 美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금각과 美를 결부지은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 田中三代子¹⁵⁾는 『金閣寺』를 일본문학에 있어서 美의 의미 변환, 새로운 美의식의 창출을 위해 의도된 실험 소설로서 평가하고 있으며, 相原和邦¹⁶⁾는 이 작품에는 전후의 현실을 거부하고 美와 함께 멸망하고자 하는 작가 三島の 통절한 희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美의 문제와 별개로 『金閣寺』는 실제방화사건의 스토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한편, 작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변경을 가하여 <父>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三島の 문학이 거의 아버지를 배제한 것¹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金閣寺』에서는 「幼児から父は、私によく、金閣のことを語った」¹⁸⁾와 같이 작품의冒頭부터 아버지를 등장시키고, 작품의 핵심인 금각도 아버지로부터 처음

13) 武田富美子 「『金閣寺』の文体」 『米沢国語国文』 8, 1981

14) 田中洋之 「三島由紀夫 「金閣寺」 の位置-結語 「生きよう」 をめぐって」 『論究日本文学』 84, 2006

15) 田中美代子, 『鑑賞日本現代文学一第23卷 三島由紀夫』, (日本:角川書店, 1980), p138

16) 相原和邦 「三島由紀夫の死」 『三島由紀夫』, (有精堂, 1984), p.225

17) 허호 「三島由紀夫의 自己改造-미시마文學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日本思想』 제2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00, p.198

18)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1995, p.5

듣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방화범은 어머니를 따라 金閣寺를 방문하지만, 작품에서는 아버지를 따라 가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할머니는 물론 어머니도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아버지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吃りに 있어서도 실제 방화범이 4살 경부터 그 증상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작품의 주인공은 선천적인 吃리로 설정되어 吃리가 육친으로부터 주어졌음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작품의 흐름상으로는 전반부에 아버지는 죽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간 금각 즉, 주인공의 인생을 가로막는 금각의 환영에서 <父>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작가는 <父>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작품 전체에서 <父>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각의 의미, 금각의 방화의 의미 등을 <父>와 관련하여 재해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본론

1. <父>의 존재

본 작품 속의 아버지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관상으로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한편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金閣寺』의 아버지 대한 해석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한다거나, 금각의 소개자 역할로 한정짓고 있는 쪽이 많았다.

허호¹⁹⁾는 어머니와 밀착된 모친고착의 여성적 원리에서 남성적인 원리로 멋지게 성공한 작품으로 『金閣寺』를 제시하면서 아버지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三島문학이 항상 아버지를 배제한데 비해 『金閣寺』의 작품 처음부터 아버지를 등장시켰다는 점, 금각으로 안내를 해주었던 역할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로 의도적으로 설정했다는 점과 어머니의 존재를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三島문학에서의 『金閣寺』를 남성적 원리로 이행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보고 있다.

한편, 清沢遥香는 아버지의 존재를 「神적인 존재」²⁰⁾로 보면서 아버지를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동경의 대상으

19) 허호 「三島由紀夫의 自己改造—미시마文学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日本思想』 제2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00, p.199 (참조)

20) 清沢遥香 「金閣に代わるものとしての手記-父親殺しの物語として」 『尾道大学日本文学論叢』, 2005, p.58

로서 파악」²¹⁾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속의語り手인 나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의 애정과 나약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면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私はその掌の中であるくうなずいた。諒解と合意が、私の小さな顔のうなずきから、すぐ察せられて、父の掌は外された。そして私は掌の命ずるまま、掌の外されたのちも、不眠の朝が明けて、臉がまばゆい外光に透かされるまで、頑なに目を閉じつづけた。(中略)私はあの掌、世間で愛情と呼ぶものに対して、これほど律儀な復讐を忘れなかったが、母に対しては、あの記憶をゆるしていないこととは別に、私はついぞ復讐を考えなかった。

(『金閣寺』第三章 p.60)²²⁾

위의 인용문에서 주인공인 나는 어머니의 불륜장면을 가려준 애정 있는 아버지의 손을 증오하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아닌, 그 손에 대한 복수를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즉, 나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부드럽고 애정 어린 이면에 감추어진 잔인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버지의 존재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父の死によって、私の本当の少年時代は終わるが、自分の少年時代に、まるきり人間関心ともいふべきものの、欠けていたことに私は驚くのである。そしてこの驚きは、父の死を自分が少しも悲しんでいないのを知るに及んで、驚きとも名付けようのない、或る無力な感懐になった。

(『金閣寺』第二章 p.39)

21) 前掲注20, p.49

22)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社, 1995, p.60 (본고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함)

주인공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진정한 소년시절은 끝이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즉, 나에게 있어서 소년시절이란 「私はこんな時だけ、故意の演技の場合だけ、少年らしかった」²³⁾ 라는 고백처럼 자신을 감추고 아버지가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존재한 시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가 바라는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면은 다음의 장례식 장면의 묘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対面などではなく、私はただ父の死顔を見ていた。屍はただ見られている。私はただ見ている。見るということ、ふだん何の意識もなしにしているとおり、見るということが、こんなに生ける者の権利の証明でもあり、残酷さの表示でもありうる
とは、私にとって鮮やかな体験だった。²⁴⁾

(『金閣寺』第二章 p.35)

죽은 아버지와 대면하는 모습 중에서 나는 「対面」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見ている」, 아버지의 관은 그저 「見られている」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어린 시절 당시에는 의식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지금까지 아버지나와 「対面」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見ていた」 아버지의 「残酷さの表示」을 내가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가 적대적이며 잔인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잔인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自分の生を確かめてみることを学んだ」²⁵⁾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버지

23) 前掲注22, p.27

24) 前掲注22, p.35 (본고의 밑줄은 논자에 의함.)

25) 前掲注22, p.35

로 인해 나의 고유한 인생을 차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은 나의 인생을 가로막은 것에 대한 감정으로 생각되어진다. 나의 인생을 차단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절대적인 금각을 통해 나의 인생을 차단하고 있다. 금각은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전해진 것이며 무엇보다 금각이 나에게 전해진 방식이 절대적이며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다음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금각을 이야기해준 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父は決して現実の金閣が、金色にかがやいているなどと語らなかったはずだが、父によれば、金閣ほど美しいものは地上になく、また金閣というその字面、その音韻から、私の心がえがきだした金閣は、途方もないものであった。

(『金閣寺』第一章 p.6)

아버지는 금각을 이야기할 때 금빛으로 빛 난다라든지 모양이 어떠하다라는 이야기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단지 「金閣ほど美しいものは地上にない」라고 말했다. 즉, 이러한 아버지의 이야기 방식은 나의 생각과 상상력을 차단시켰으며, 이로서 금각은 절대적인 美 그 자체로서 나에게 부여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주인공 느낀 금각의 절대美는 「写真や教科書で、現実の金閣のをたびたび見ながら、私の心の中では、父の語った金閣の幻のほうが勝を制した」²⁶⁾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의 금각과 관계없이 아버지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각을 실제로 보러갈 때도 나는 기대와 기쁨에 차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26) 前掲注22, pp.5-6

まだ見ぬ金閣にいよいよ接する時が近づくにつれ、私の心には躊躇が生じた。
どうあっても金閣は美し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こですべては、金閣そのもの
の美しさよりも、金閣の美を想像しうる私の心の能力に賭けられた。

(『金閣寺』第一章 p.22)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실제 금각을 만나기에 앞서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금각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의 망설임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한 금각과 나의 상상의 금각이 일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따라서 금각을 향해 달리는 기차를「死の駅に向かって進んでいるように思われた」²⁷⁾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나에게 있어 절대적인 대상은 바로 아버지였으며, 금각은 아버지의 절대성을 대신하는 한 가지 요소로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お寺를 통해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私の生まれたのは、舞鶴から東北の、日本海へ突き出したうらさびしい岬である。父の故郷はそこではなく、舞鶴東郊の志楽である。懇願されて、僧籍に入り、辺鄙な岬の寺の住職になり、その地で妻をもらって、私という子を設けた。

(『金閣寺』第一章 p.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태어난 곳은 초라하고 쓸쓸한 벽촌에 위치한 寺이다. 이 공간은 내가 타인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그 절대성을 극대화하여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였다.

27) 前掲注22, pp.26-27

그런데 주인공은 바로 이 공간을 숙명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懇願されて、僧籍に入り」 의해 부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나와 세상을 차단시킨 존재로서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나는 吃리에 의해서도 현실세상으로부터 차단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실제 방화범과 달리 선천적인 吃리로 변경되어 설정되어 있으나 吃리증상이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가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吃리 출현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주인공이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 나의 인생을 꿈꾸려 할 때 어김없이 吃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작품 속에서 吃리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吃리는 나의 첫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던 有為子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私の関与を待たずに、現実はそのに賦与されており、しかも、私が今まで見たこともない重みで、この無意味な大きな真暗な現実は私に与えられ、私に迫っていた。言葉がおそらくこの場を救う只一つのものだろうと、いつものように私は考えていた。私の特有の誤解である。行動が必要なときに、いつも私は言葉に氣をとられている。それというのも、私の口から言葉が出にくいので、それに氣をとられて、行動を忘れてしまうのだ。 (『金閣寺』第一章 p.1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공은 有為子를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의 현실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현실로 다가가려 할 때 吃리로 인해 방해를 받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吃리는 다음의 어머니와 대화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 금각사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아버

지의 뜻을 받들어 금각사의 후계자가 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나는 이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 뜻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吃り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ええか。もうおまえの寺はないのやせ。先はもう、ここの金閣寺の住職様になるほかないのやせ。和尚さんに可愛がってもらって、後継ぎにならなあかん。ええか。お母さんはそれだけをたのしみに生きてるのやさかい」

私は同顔して母の顔を見返した。しかし怖ろしくて正視できなかつた。(中略) やっと私は母を直視した。ためらかな唇のはたに、母は金歯を光らして笑っていた。私の答は激しくどもった。

「そやかて、いずれ兵隊にとられて、戦死せんならんかもわからへん」

「あほ。こんな吃りが兵隊にとられたら、日本もおしまいやな」

私は、背筋を硬ばらせて、母を憎んでいた。しかし吃りながら出てくる言葉は遁辞でしかなかった。

「空襲で、金閣が焼けるかもしれへんで」

(『金閣寺』第三章 p.65)

한편, 주인공이 선천적인 吃り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는 吃り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린 시절 여름휴가를 받아 모교를 방문한 해군학교의 생도가 나에게 吃리를 놀려대면서 해군에 들어올 것을 제안한다. 이때 나는 절의 중이 될 것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吃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何だ、吃りか。貴様も海機へ入らんか。吃りなんか、一日で叩き直してやるぞ」

私はどうしてだが、咄嗟に明瞭に返事した。言葉はすらすらと流れ、意思とかわりなく「入りません、僕は坊主になるんです。」

(『金閣寺』第一章 p.9)

그런데 여기서 「意思とかかわりなく」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이 되겠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금각사의 徒弟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있을 경우에는 吃り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吃리라는 요소는 실제 방화범과 달리 선천적으로 육친에서부터 주어졌음이 강조되어 있고, 작품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나의 인생으로 나아가려 할 때 吃리가 나타나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吃리로부터 해방될 때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때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吃리는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아버지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 족쇄의 의미로서 생각되어 진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나약하고 병들어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면에는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자신의 세계를 강요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金閣寺』의 語り手인 주인공은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이 이면에 감추어진 잔인한 모습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2. <父>의 <나약함의 힘>과 금각

『金閣寺』라는 작품 속에서는 결국 방화의 대상이 되는 금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금각을 하나의 神이나 예술로서 파악하기도 했으며, 작품 속에서 금각이 美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美의 관념과 결부지은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

다.

그런데 金美亨²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美しいものに対して、人は反感を抱くことはない。その美しさに対して嫉妬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それを享受している人間に反感をいただいているのである。人がもし、純粹に美しさに反感を抱くとすれば、それは美しい人間に対してである。

즉, 인간은 아름다움 자체에 반감을 가질 수 없으며, 그 반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주장과 같이 금각의 관념이 인간과 관계를 가짐을 통해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각과 가장 깊은 관계성을 가진 인간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금각을 나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그 절대미를 주장한〈父〉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금각을 아버지의 것이 아닌 나의 내부로부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심재민은 「본 작품의 진행 사건은 인간에 대한 관심 즉 외부세계를 버리고 미에 대한 관심 즉 내부세계로 전환되 나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²⁹⁾라고 말하고 있으며, 清沢遥香 역시 「安岡へかえってから日に日に、心の中で金閣が見る前よりもさらに美しくなっていた。」³⁰⁾라고 주장하면서 주인공이 실물의 금각을 보고 난 뒤 고향에 돌아와 스스로의 내면에서 금각의 美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松本健一은 「このような世間から遅れ、別様の現実しか目にできないという敗残者が、そのことによって一人、真実あるいは美を所有できる」³¹⁾라고 말하면서

28) 金美亨 「『金閣寺』における「美」についての考察」 『解釋と鑑賞』 65-1,2000, p.81

29) 심재민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초·중기작품 주제론」 『日語教育』 제35輯, 2006, p.168

30) 清沢遥香 「金閣に代わるものとしての手記-父親殺しの物語として」 『尾道大学日本文学論叢』, 2005, p.49

현실 세상에 있어서 패배자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주인공이 진실한 美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금각을 나의 내부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작품 속에서 어린시절 아버지의 일방적인 말에 의해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금각이 실체의 아름답지 않은 금각을 만나면서 더 이상 나의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금각은 나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금각으로 분리되는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주인공이 실제 금각과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릴 때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말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세계 속에 갇혀 금각만을 생각하고 금각만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에게 금각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金閣寺로 데리고 가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아버지의 말대로 금각은 아름다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내 눈에 비친 금각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私はいろいろ角度を変え、あるいは首を傾けて眺めた。何の感動も起らなかった。それは古い黒ずんだちっぽけな三階建にすぎなかった。

頂の鳳凰も、鴉がとまっているようにしか見えなかった。美しいどころか、不調和な落着かない感じをさえ受けた。美というものは、こんなに美しくないものだろうか、と私は考えた。 (中略) 私はまず硝子のケースに納められた巧緻な金閣の模型を見た。この模型は私の気に入った。このほうがむしろ、私の夢見ていた金閣に近かった。そして大きな金閣の内部にこんなそっくりそのままの小さな金閣が納まっているさまは、大宇宙の中に小宇宙が存在するような、無限の照応を思わせた。はじめて私は夢みることができた。この模型よりもさらにさらに小さ

31) 松本健一『三島由紀夫亡命伝説』, 河出書房新社, 1987, p.93

い、しかも完全な金閣と、本物の金閣よりも無限に大きい、ほとんど世界を包むような金閣とを。

(『金閣寺』第一章 pp. 28-29)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금각은 나의 눈에 전혀 아름답지 않는 낡은 3층짜리 건물에 불과했다. 즉, 여기서 나는 아버지의 美와 나의 美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금각 안에 배치된 작은 모형 금각을 내가 꿈꾸던 금각에 가깝다고 고백하면서 커다란 금각 안에 나의 모형 금각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大宇宙の中に小宇宙>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려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의 금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大宇宙の中に小宇宙>의 조응은 내가 실물의 금각을 봄으로 인해 大宇宙인 아버지의 세계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는 나만의 인생인 小宇宙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나는 실체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서 환영을 키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금각을 더 이상 나의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며 이 분리점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과 아버지의 세계를 더 이상 일치 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실물을 만남으로서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던 나의 인생은 힘없고 초라한 것이 아니었다. 「完全な金閣と本物の金閣よりも無限に大きい、ほとんど世界を包むような金閣」를 꿈꾸며 나의 인생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에 차있으며 꿈과 희망에 도취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 이러한 나의 인생을 단숨에 단념하고 금각의 美를 또다시 인정하면서 받아들인다.

あれほど失望を与えた金閣も、安岡へかえったのちの日に日に、私の心の中で
また美しさを蘇らせ、いつかは、見る前よりももって美しい金閣になった。どこが
美しいということはできなかった。 (『金閣寺』第一章 p. 33)

그렇다면 이렇게 꿈과 희망에 부푼 나의 인생을 단숨에 포기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美しいと思うことはできなかった。」라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던 나의 인생을 버리고 계속해서 금각을 무리하게 받아
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금각을 무리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父의 나약함> 을 느꼈을 때에 나타나고 있다.

「この次来るときは、又変わってるんやろな」
と父はうそ寒い面持で言った。しかし「この次来るとき」を、もう父が確信してい
ないということを私は感じた。しかし私は、わざと少年らしく(私はこんな時だけ、
故意の演技の場合だけ、少年らかった)、陽気に先にたって、ほとんど駈けて
行った。 (『金閣寺』第一章 p. 27-28)

위에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금각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을 하고, 갑자기 금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내가 먼저 금각을 보러가지고 재촉했을 때도 아버지가 죽음을 눈앞
에 둔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금각사의 徒弟가 되도록 간청하고 있는 모습
을 보고 난 뒤였다.

「この子をな……」と父の言っている声をききつけて、私は父のほうへふりむい

た。ほとんど暗くなった室内では、私の将来が、父から道詮師に託されているのだった。

「わしも永いこと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どうかその節はこの子をな」

道詮師はさすがにお座なりの慰めなどは言わなかった。

「よろし。お引き受けします。」

(中略) 私は父を促して、もう一度金閣を見に行った。月が昇ったからである。

父は住職との久々の対面に興奮して、大そう疲れていたが、金閣ときくと、息を切らしながら私のかたにつかまってついて来た。

(『金閣寺』第一章 p.31)

그리고 아버지가 금각의 아름다움을 강요할 때에는 항상 <父の病んだ肉の薄い手>가 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

「どや、きれいやろ。一階を法水院、二階を潮音洞、三階を究竟頂と云うのんや」父の病んだ肉の薄い手は私の肩に置かれていた

(『金閣寺』第一章 p. 28)

결정적으로 나의 눈에 전혀 아름답지 않던 금각이 그 이전에 내가 꿈꿨던 금각보다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된 시기는 나의 어깨에 올려진 아버지의 손이 백골로 변하는 것을 본 뒤였다.

私はわが肩に父の瘦せ細った手の重みを感じていた。その肩に目をやったとき、月光の加減で、私は父の手が白骨に変わっているのを見た。あれほど失望を与えた金閣も、安岡へかえったのちの日に日に、私の心の中でまた美しさを蘇らせ、いつかは、見る前よりもっと美しい金閣になった。

(『金閣寺』第一章 pp.32- 33)

금각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地上でもっとも美しいものは金閣だど、お父さんが言われたのは本当です」³²⁾라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도 결국 내가 고백한 아름다움이 나의 내부의 감정이 아닌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나의 인생을 단숨에 포기하게 한 아버지의 <나약함의 힘>에 대해서는 三島由紀夫의 『不道德教育講座』³³⁾속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どんな強者と見える人にも、人間である以上弱点があって、そこをつつけば、もろくぶつ倒れるものですが、私がここで「弱い者」といふのは、むしろ弱さをすっかり表に出して、弱さを売り物にしてゐる人間のことです。この代表的なのが太宰治といふ小説家でありまして、彼は弱さを最大の財産にして、弱い青年子女の同情共感を惹き、はてはその悪影響で、「強いはうかわるい」といふやうなまちがった劣等感まで人に興へて、そのために太宰の弟子の田中英光などといふ、お人好しの元のオリンピック選手の巨漢は、自分が肉体的に強いのは文学的才能のないことだとカンチガヒして、太宰のあとを追って自殺してしまいました。これは弱者が強者をいじめ、つひに殺してしまった怖るべき実例です。

위에서 三島由紀夫가 말하고 있는 약자는 일반적인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외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나약함을 이용하여 타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약자의 모습은 『金閣寺』의 아버지의 모습과 구체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 먼저, 약자가 자신의 나약함을 숨김없이 상품처럼 드러내 이용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도 금각을 나에게 강요할 때 자신의 병든 손을 나의 어깨 위에 올려 동정을 유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약자

32)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1995, p.33

33) 三島由紀夫 『三島由紀夫全集補卷1』, 新潮社, 1976, p.60

가 자신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면성을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이 『金閣寺』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아들을 금각에 데려가는 듯 묘사되어 있지만 「父は一言もいわなかったが、母と同じ野心の下に、私をこの寺へ送ったのかも知れなかった。」³⁴⁾와 같이 그 이면에 자신의 야심을 숨기고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약자가 강자에게 그릇된 열등감을 끼쳐 오히려 자살까지 하게 만든 것처럼 아버지는 금각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美がたしかにそこに存在しているならば、私という存在は、美から疎外されたものなのだ」³⁵⁾와 같이 나를 미로부터 소외시켰다. 또한 약자와 『金閣寺』의 아버지는 나약함의 이면에 역설적인 <나약함의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통해 볼 때 약자의 세계와 아버지의 세계는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약자인 아버지의 세계는 작품의 핵심이 되는 금각의 모습과 또다시 상응하고 있다. 아버지의 세계가 표면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나약함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각 또한 외관상으로는 낮은 3층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いつもその美を半ば隠して、空惚けているように³⁶⁾」와 같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美를 살짝 감추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게 그릇된 열등감을 끼쳐 무력하게 했던 것과 같이, 금각 또한 나에게 그릇된 열등감을 끼치고 무력하게 만드는 <すべての無力の根源>³⁷⁾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외에 약자의 세계가 현실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이 금각 또한 최싹식 자동 화재경보기가 부착되어 현실세상의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되는

34)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1995, p.66

35) 前掲注34, p.24

36) 前掲注34, p.118

37) 前掲注34, p.190

점, 실물의 금각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백골 손에 의해 나의 인생이 가로 막히게 된 것과 같이 금각 또한 「私と、私の志す人生との間」³⁸⁾에 출현하며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금각은 약자와 아버지의 세계의 <나약함의 힘>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의 금각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금각은 나의 인생과 구분되는 아버지 세계로부터의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약함의 힘>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세계는 금각의 모습과 상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작품의 전반부에 아버지는 비록 죽지만 이것으로서 아버지의 세계는 종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고 간 무력의 근원인 금각을 통해 존속되면서 나의 인생을 나약함의 세계로 이끌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전후의 금각

작품 속에서 금각은 아름다웠다가 다시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것으로 반복되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주인공이 금각의 美에 대한 내면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작품 속에서는 <전후 변화한 현실 세상>과 관계없이 전쟁 전과 후 모두에서 금각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나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렇게 작품 표면상에 나타난 고백만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에 진심으로 금각의 美를 받아들이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전쟁이 끝나기 전, 주인공의 내면에 금각의 美가 과연 어

38) 前掲注34, p.134

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기 전, 주인공이 금각의 美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은 실물의 금각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와 다음의 공습의 기대를 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空襲の期待がこんなにも私たちを金閣を近づけた。(中略)それから終戦までの一年間が、私が金閣と最も親しみ、その安否を気づかい、その美に溺れたときである。どちらかといえば、金閣を私と同じ高さにまで引き下げ、そういう仮定の下に、怖れげもなく金閣を愛することのできた時期である。

(『金閣寺』第二章 pp.49-50)

湯浅博雄은 이 부분을 작품의 표면상에 나타난 주인공의 고백과 같이 공습의 기대 하에서 금각과 나와의 농밀한 교제를 통해 금각의 美가 나의 내면에 진심으로 받아들진 것³⁹⁾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쟁이 끝나기 전, 주인공이 금각의 美를 고백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이 두시기의 아름다움의 고백은 금각의 미를 인정하고 있지 않던 상황 중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다.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금각의 美를 인정한 그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금각은 주인공의 눈에 도무지 아름답지 않은 낡고 초라한 건물에 불과했으며, 금각의 美를 고백한 공습시기 역시 그 이전의 장면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금각의 美를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閣よ。やっとあなたのそばへ来て住むようになったよ。」と、私は箒の手を休めて、心に呟くことがあった。「今すぐでなくてもいいから、いつかは私に親しみを示し、私にあなたの秘密を打明けてくれ。あなたの美しさは、もう少しのところで

39) 湯浅博雄 「死の経験の二重性<永遠回帰>の両義性」 『国文学』 45-11, 2000, p.34

はっきり見えそうでいて、まだ見えぬ。私の心象の金閣よりも、本物のほうがはつきり美しく見えるようにしてくれ。又もし、あなたが地上で比べるものがないほど美しいなら、何故それほど美しいのか、何故美しくあらねばならないのかを語ってくれ」

(『金閣寺』第二章 p.39)

그리고 이 두시기의 두 번째 공통점은 아름다움을 고백할 당시의 상황이 아버지와 금각의 종말이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실물의 금각을 보았을 때 주인공은 백골로 변한 아버지의 손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전쟁의 공습 시기에도 공습의 기대로 공습으로 금각이 불타 없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즉, 금각의 美에 대한 주인공의 고백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진심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금각의 방화직전에 주인공이 「金閣がいずれ焼けると思うと、耐えがたい物事も耐えやすくなった」⁴⁰⁾라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각의 멸망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어야 말로 아버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주인공이 금각의 美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금각의 멸망을 전제로 하여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다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この美しいものが遠からず灰になるのだ、と私は思った。それによって、心象の金閣と現実の金閣とは、絵絹を透してなぞって描いた絵を、元の絵の上に重ね合わせるように、徐々にその細部が重なり合い、屋根は屋根に、池に突き出たうがい漱清は漱清に、潮音洞の勾欄に、究竟頂の華頭窓は華頭窓に重なって来た。金閣はもはや不動の建築ではなかった。それはいわば現象界のはかなさの象徴に化した。現実の金閣は、こう思うことによって、心象の金閣に劣らず美しいも

40) 三島由紀夫『金閣寺』，新潮社，1995，p.214

전혀 받아들여진 금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쟁이 끝나기 전 금각은 비극의 금각으로 나의 내면까지를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1 전후의 현실세상

종말을 예상하던 비극의 금각은 전후, 나의 내면까지를 간섭하는 절대美로 변하게 된다.

敗戦の衝撃、民族的悲哀などというものから、金閣は超絶していた。もしくは超絶を装っていた。きのうまでの金閣はこうではなかった。とうとう空襲にやかれなかったこと、今日からのちはもう怖れがないこと、このことが金閣をして、再び、「昔から自分はここに居り、未来永劫ここに居るだろう」という表情を取り戻させたのにちがいない。(中略) 金閣がこれほど堅固な美を示したことはなかった! あらゆる意味を拒絶して、その美がこれほどに輝やいたことはなかった。誇張なしに言うが、見ている私の足は振え、額は冷汗が伝わった。すべての価値が崩壊したと人は言うが、私の内にはその逆に、永遠が目ざめ、よみがえり、その権利を主張した。金閣がそこに未来永劫存在するということを語っている永遠。

(『金閣寺』第三章 pp.68-69)

위와 같이 주인공은 전후에 나타난 금각에 대해 「これほど堅固な美を示したことはなかった」「その美がこれほどに輝やいたことはなかった」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美를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모습도 이전과 달리 「見ている私の足は振え、額は冷汗が伝わった」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금각의 美가 주인공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松本健一은 「金閣は敗戦の日、誰からも見捨てられているとき、敗戦の衝撃とか民族的悲哀とかいったものから超絶した姿を見せる」⁴³⁾라고 하면서 금각의 美가 절대적인 美로 거듭나는데 이러한 전후의 상황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금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초월한 금각의 모습 때문이라기보다 나의 내면을 간접하는 보다 강력하고 거대한 힘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현실 세상이었다. 즉, 나에게 있어서 현실의 세상이란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와는 달리 「厳しい外光。輝かしい侮蔑」⁴⁴⁾와 같은 혹독하고 냉엄한 세계로서 「怖ろしい世界」⁴⁵⁾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私はといえば、二米ほどの距離を置いて、グラウンドのベンチに一人で腰掛けていた」⁴⁶⁾와 같은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이 현실의 세상과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늘 앉아 이 냉엄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지 않고 현실에 대한 참여의지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현실 세상을 포섭할 수 있는 「ほとんど世界を包むような」⁴⁷⁾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다. 이렇게 이 현실의 세상은 두렵고 거대한 세상이었지만 아버지의 세계와 달리 내가 부정하고 멸망하기를 바라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펼칠 꿈과 희망의 무대로서의 세계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이러한 현실 세상이 다음과 같이 아버지의 금각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43) 松本健一 『三島由紀夫亡命伝説』, 河出書房新社, 1987, p.94

44)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1995, p.36

45) 前掲注44, p.60

46) 前掲注44, p.29

47) 前掲注44, p.29

金閣の見物はおいおい数をまた。老師は市に申請して、インフレーション即応するような拝見料の値上げに成功した。

(『金閣寺』第三章 p.77)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금각을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거의 드물었지만, 전후, 금각을 찾는 방문객은 그 수를 더해 가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세상은 금각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자동경보 장치를 부착시키고⁴⁸⁾, 금각사의 보조비를 지원하면서 아버지의 금각을 지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현실 세상의 지지를 받게 된 금각은 더 이상 초라한 것이 아닌 <절대美>로서 나의 내면에 인식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실제의 금각이 암흑속에서도 「金閣だけは幸に残された」⁴⁹⁾에서 알 수 있듯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처럼 나의 내면속에서도 아버지의 죽음과 공습의 기대를 거친 몇 번의 종말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두려움의 세계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현실세상이 아버지의 금각을 지지하게 되자 나는 이윽고 아버지의 금각에 대해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라 보여진다.

3.2. 금각의 환영

전후 변화한 세상이 금각을 지지하면서 아버지의 세계는 이전의 초라하고 힘없는 세계가 될 수 없으며, 이로서 드디어 나의 외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금각의 환영이 출현하게 된다.

한편, 허호는 이러한 금각의 환영을 有為子를 동일시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48) 前掲注44, p.256

49) 前掲注44, p.23

有為子와 금각은 모두 주인공이 거부하는 美라는 점
有為子와 금각 앞에서 내가 돌처럼 굳어 버린 점
有為子が 죽고 나서 실제의 금각을 대면 구성으로 볼 때
죽은 有為子の 상징이 금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⁵⁰⁾

그러나 작품 속에서 금각과 有為子の 환영은 동일시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 보다 대비적인 대상으로 파악된다. 먼저 금각은 아버지로부터 인식된
美였기 때문에 어디가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有為子は
「美しい娘がいた。有為子という名である。目が大きく澄んでいる」⁵¹⁾라고 그 아
름다움에 대해 내가 직접 묘사할 수 있었던 점을 통해 볼 때 금각은 아버
지의 美의 대상이며, 有為子は 나의 美의 대상으로서 생각된다. 그리고 有
為子の 환영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금각의 환영은 나의 인생을 차단시키며 등장한 점, 有為子の
존재감으로 내가 힘을 얻었던 것과 달리 금각의 환영에 의해서는 내가 무
력해졌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有為子の 환영은 나의 인생을, 금각의 환
영은 아버지의 세계를 상징하는 대비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통해 살펴 볼 때, 앞서의 有為子와 금각을 동일시
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먼저 有為子は 누군가로부터 절대적으로 인식된 美가 아니었다는 점과
有為子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것은 「行動が必要なときに、いつも私は言葉
に氣をとられている。私の口から言葉が出にくいので、それに氣をとられて、行動を忘
れてしまうのだ」⁵²⁾에서 알 수 있듯이 吃리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으로 이것

50) 허호, 「三島由紀夫『金閣寺』論-有為子の変容-」 『日語日文学研究』 第40輯,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p.255 (참조)

51)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1995, p.12

52) 前掲注51, p.14

은 금각 앞에서 금각에 도취해 그 세계 속에 휩싸임으로 인한 석화현상과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각이 有為子の 상징으로서 금각과 有為子를 동일시하고 있지만, 나에게 금각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과 죽기직전까지 유언을 통해 금각을 강요했던 점을 통해 볼 때 有為子가 금각으로 변화한 것이라기보다 금각은 아버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또한 금각의 환영에서 다음과 같이 <父>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금각의 환영은 아버지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다음과 같이 금각의 환영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을 방해하며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를 따라 실물의 금각을 금각을 보러갔을 때 모형금각을 보면서 꿈꾼 나의 인생이 아버지의 백골 손에 의해 차단되는 부분과 상응하고 있다.

それは私の志す人生との間に立ちはだかり、はじめは微細画のように小さかったものが、みるみる大きくなり、あの巧緻な模型のなかに殆んど世界を包む巨大な金閣の照応が見られたように、それは私をかこむ世界の隅々までも埋め、この世界の寸法をきっちりと充たすものになった。

(『金閣寺』第七章 pp.68-69)

2) 다음의 금각 환영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나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 모습은 어머니의 불륜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나의 눈을 가려 주었으며,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등감이 없는 「老人とごく若い者としか残っていなかった金閣

寺」⁵³⁾의 도제가 되도록 유언을 남겨 아들을 냉엄한 현실로부터 보호하려 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どこへ向かって急いでいるのか、私自身わからなかった。電車が徐々に紫野へさしかかるところから、私は自分のせきたつ心が金閣を志しているのを知った。
私の心は和み、ようようのこと恐怖は衰えた。それは人生から私を遮断し、人生から私を護っていた。

「又もや私は人生から隔たれた！」と独言した。「又してもだ。金閣はどうして私を護ろうとする？頼みもしないのに、どうして私を人生から隔てようとする？」

(『金閣寺』第六章 p.164)

3) 평상시 나를 늘 소외시키던 금각은 내가 현실로 다가가려고 할 때에 나를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이면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면적 모습은 「父とはこうしたこう幸苦の友であるのみならず、開枕の時刻のあとで、堀を乗り越えて女を買いに出たりする楽しみをともにした仲でもあった」⁵⁴⁾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상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현실세상의 어머니의 불륜 장면 앞에서 주인공의 눈을 가려 보호하는 이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과 상응한다.

時にはあれほど私を疎外し、私の外に屹立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た金閣が今完全に私を包み、その構造の内部に私の位置を許していた。

(『金閣寺』第五章 p.134)

さて私が幻の金閣に完全に抱擁されていたのは永い時間ではなかった。あのように金閣が私を受け入れ、抱擁していた幻影の時は過ぎ去った。

(『金閣寺』第五章 p.135)

53) 前掲注51, p.38

54) 前掲注51, p.30

4) 다음의 금각의 환영에는 나의 세계를 감싸는 거대한 세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아버지와 내가 처음 실물의 금각을 보았을 때 나타났던 아버지의 거대한 금각 속의 작은 모형 금각이었던 「大宇宙の中に小宇宙が存在するような、無限の照応」⁵⁵⁾의 모습과 상응하고 있다.

それはあの巧緻な模型のなかに殆んど世界を包む巨大な金閣の照応が見られたように、それは私をかこむ世界の隅々までも埋め、この世界の寸法をきっちりと充たすものになった。
(『金閣寺』第五章 p.134)

지금까지 살펴본바, 금각의 환영은 나의 인생을 상징하는 有為子の 환영과 대립된 것으로서 아버지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나약함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이 금각의 환영은 나의 인생(有為子)를 가로막으며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된다. 따라서 나는 금각의 환영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금각의 방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금각의 방화

금각방화의 계기는 주인공이 다음의 꿀벌의 관찰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私はほとんど光りと、光りの下に行われているこの営みとに眩暈を感じた。ふとして、又、蜂の目を離れて私の目に還ったとき、これを眺めている私の目が、丁

55) 前掲注51, p.29

度金閣の目の位置にあるのを思った。それはこうである。私が蜂の目であること
をやめて私の目に還ったように、生が私に迫ってくる刹那、私は私の目であること
をやめて、金閣の目をわがものにしてしまう。そのとき正に、私と生との間に金閣
が現われるのだと。

(『金閣寺』第七章 p.169)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 앞에 두고도 나의 눈이 되길 포기하고 금각의 눈으로 변모해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금각의 방화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세계(금각의 눈)을 버리고 나의 인생(나의 눈)을 점차 확립해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 금각의 방화에 이르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는 아버지의 세계와 같은 금각의 환영 속의 나약함의 세계를 극복하고 고유한 나의 인생을 점차 확립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인공의 방화의 과정이 작품 속에서는 수동적 혹은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주인공은 방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방화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상승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패전 후, 멸망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금각은 더욱 세상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게 되자 나의 내면을 간섭하면서 나의 인생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로막게 되고 나는 이러한 나의 고유한 인생을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의 세계에 대항해 가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 날 金閣寺에 찾아온 미군과 창녀의 안내를 담당하게 되는데 나는 미군의 지시를 받아 창녀의 배를 밟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창녀는 「ひとつひとつちがっていて、有為子と似せないように似せないようにと、吟味して描いた肖像のようであった」⁵⁶⁾에서 알 수 있듯이 有為子の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

56) 前掲注51, p.81

로 그려내려 했던 대상이었다. 즉, 여기서 주인공은 자신의 美와 정반대인, 자신의 눈에 도무지 아름다울 수 없었던 낡고 초라한 아버지의 금각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인공 스스로가 창녀의 모습에 아버지의 美를 생각하며 투영시키려 한 것은 금각의 美를 짓밟고자 한 나의 적극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이 장면에서 이 행위를 재촉시킨 말이 영어였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내가 영어를 쓸 때에 더듬거리지 않았다는 점⁵⁷⁾과, 다음과 같이 창녀의 배를 밟으라는 따뜻한 말이 영어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은 제3의 세계에 있어서의 나의 인생에 대한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3의 세계를 통해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보여진다.

へい、と米兵が叫んだ。私はふりむいた。足をひろく踏んばった彼の立姿が目の前に在った。指で私に合図した。打って変った温かい潤みのある声が、英語でこう言った。

「踏め。おまえ、踏んでみろ」

彼の太い手が下り来て、襟首をつかまえて、私をたたせた。しかし命ずる声音はやはり温かく、やさしかった。

「踏め、踏むんだ」

抵抗しがたく、私はゴム長靴の足をあげた。米兵が私の方を叩いた。私の足は落ちて、春泥のような柔らかいものを踏んだ。

(『金閣寺』第三章 p.83)

작품의 표면상에서 나는 거둬하여 창녀를 짓밟는 행위를 「私は命じられ、強いられてやったにすぎない」⁵⁸⁾와 같이 미군의 지시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

57) 前掲注51, p.79

58) 前掲注51, p.84

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彼の青い目は少しも残酷ではなかった。それを、その瞬間、世にも抒情的だと感じたのは何故だろう」⁵⁹⁾라고 느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그 행위의 감미로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私はすべてを強いられてやったのである。しかし私のゴム長の靴裏に感じれてた女の腹、その媚びるような弾力、その伸び、その押しつぶされた肉の花びらく感じ、或る感覚のよろめき、そのとき女の中からわたしのなかへ貫いてきた隠微な稲妻のようなもの、そういうものまで、私が強いられて味わったということはできなかった。私は今も、その甘美な一瞬を忘れていない。老師は私の感じた中核、その甘美の中核を知っていた!

(『金閣寺』第四章 pp.91-92)

즉, 이 행위는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를 벗어나 나의 인생의 획득을 위한 첫 시도로서 나에게 「勳章」⁶⁰⁾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금각 방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보여진다.

금각 방화의 두 번째 단계는 老師에 대한 대항이었다.

老師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보여진다. 老師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중의 신분이면서 유곽에 드나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초라한 백골 손으로 자신의 세계를 나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금각 방화 직전에 병에 걸린 연기를 하면서 연민의 정으로 호소하여 금각의 방화를 막으려 하였다. 즉,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보아만 오던 존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老師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면서, 그 뜻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언으로 나의 행위를 무시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나의 老師에 대한 대항은 아버지의

59) 前掲注51, p.83

60) 前掲注51, p.92

세계에 대한 대항으로서 생각될 수 있으며, 나는 아버지를 대신한 老師를 통하여 절대성의 이면에 감춰진 아버지의 금각에 대한 모순과 이중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여진다. 나는 老師가 중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창녀와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老師에 대한 대항 행위는 단지 아버지의 세계에 반발한 대항의 의미가 아니라 老師의 절대적인 세계에 속에서 나의 인생의 힘과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보여진다.

그런데 한편, 나의 老師에 대한 대항의지와 달리 내가 老師와의 화해를 꿈꾸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自室に座って、学校へゆくまでのその間、鼓動のいよいよ高まるのに任せながら、私はこうまで希望を以て何事かを待ったことはない。老師の憎しみを期待してやった仕業であるのに、私の心は人間と人間とが理解し合う劇的な熱情に溢れた場面をさえ夢見ていた。

老師は突然私の部屋へ来て、私をゆるすかもしれなかった。ゆるされた私は、生まれてはじめて、鶴川の日常がそうであったような、あの無垢の明るい感情に到達するかもしれなかった。老師とわたしはおそらく抱き合い、お互いの理解の遅かったのを嘆くことだけが、あとにのこされるに相違なかった。(中略) 今度は老師の荒々しい怒りを、宙のような大喝を待った。殴打され、蹴倒され、血を流す羽目になっても悔いまいだろうと私は思った。しかし大書院のほうはひっそりして、何の物音も近づいて来なかった。 (『金閣寺』第七章 pp. 179-180)

清沢遥香는 이 장면을 「老師に人間的な感情を期待し、父親的人物に、叱責され、劇的に理解し合いたかったのだ」⁶¹⁾ 라고 하며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인

61) 清沢遥香 「金閣に代わるものとしての手記-父親殺しの物語として」 『尾道大学日本文学論叢』, 2005, p.50

정받기를 원하고 진정한 화해를 꿈꾸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老師의 無言의 태도에 굴복하여 먼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무력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나의 인생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老師의 無言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二十年間というもの黙りこくって生きてきた私には、告白の値打などは知れている。私を大袈裟だと云うだろうか。老師の無言に対抗して、告白をせずに来た私は、「悪が可能か？」ということ一つを試してきたのだと思われる。もし私が最後まで懺悔をしなければ、ほんの小さな悪でも、悪はすでに可能になったのだ。しかしもし打ち明ければ、私の人生の最初の小さな悪も、瓦解するのだという思いは私を引止め、何ものが私の背をしっかりと引いていた。ほんやりしている私の肩を鶴川が叩いた。私の肩は目覚めた。子の瘦せた見すばらしい肩は、誇りを取り戻した。

(『金閣寺』第四章 p.95)

私だけが身内に力を感じていた。少なくとも私にはそう思われた。テキストをひらいて老師は皆を見まわしたが、私の目は老師の目を追った。決して伏目なってはいないところを見せようとしたのである。

(『金閣寺』第七章 p.181)

그리고 드디어 無言으로서 나의 대항 행위를 무시해 오던 老師가 드디어 반응할 때에도 나는 아버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며 화해하려 하기보다 「私は自分という存在に首までどっぷり浸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た」⁶²⁾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인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극에 달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나의 인생을 추구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2)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社, 1995, p.185

私は自分という存在に首までどっぷり浸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た。外界のところどころが冷え、また熱していた。そうだ、何と云ったらいいか、外界が斑らをなし、又、縞目をなしていた。自分の内部と外界とが不規則にゆるやかに交代し、回りの無意味な風景が私の目に映るままに、風景は私の中へ闖入し、しかも闖入しない部分が彼方に澆刺と煌めいていた。その煌めいているものは、ある時は工場の旗であったり、塀のつまらない汚点であったり、草間に捨てられた古下駄の片方であったりした。あらゆるものが一瞬一瞬に私の内に生起し、又死に絶えた。あらゆる形をなさない思想が、と云おうか。重要なものが些末なものをつなぎ、今日新聞で読んだヨーロッパの政治的事件が、目前の古下駄と切っても切れぬつながりがあるように思われた。

(『金閣寺』第七章 pp.185-186)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꿈꾸고 있었다고 말한 화해의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에도 나는 아버지의 금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아버지의 금각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의 인생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의 대화는 나를 후계자로 삼을 뜻이 없다 라는 老師의 말을 핑계 삼아 내가 아버지의 금각을 버리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으로 연출하여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장면이다.

亡くなったお父さんは、どないに悲しんでいられるやろ。この手紙を見てみい。学校から又きつう言うてよこした。そないなことで、末はどうなると思うか、自分でよう考えてみるのやな」—それから、引きつづいてあの言葉を言ったのである。「お前をゆくゆくは後継にしようと思つていたこともあったが、今ははっきりそういう気持がないことを言うて置く」

私は永いあいだ黙っていて、こう言った。

「私をもう見捨てになるのとちがいますか」

老師は即答しなかった。やがて、

「そままでして、まだ見捨てられたくないと思うか」

私は答えなかった。しばらくして、我知らず、吃りながら別事を言った。

「老師は私のことを隅々まで知っておられます。私も老師のことを知っておるつもり
でございます」

「知っておるのがどうした」一和尚は暗い目になった。

「なにもならんことじゃ。益もないことじゃ」

私はこの時ほど現世を完全に見捨てた人の顔を見たことがない。生活の細目、
金、女、あらゆるものに一々手を汚しながら、これほどに現世を侮蔑している人
の顔を見たことがない。

(『金閣寺』第七章 pp.187-188)

위에서는 老師의 「そままでして、まだ見捨てられたくないと思うか」 라는 결정적
인 질문에 내가 「見捨てられたくない」 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때 결국 나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버
지를 일방적으로 버리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 금각방화의 두 번째 단계로 파악하기에 문제시
되었던 노사의 화해장면에서도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화해가 아닌, 아버지
의 세계에 대항하는 주인공의 일관적인 의지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노사에 대한 대항의 단계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긴 금각 방화로
의 두 번째 단계로서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난 나의 인생을 확인해 가는 과
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어서 금각 방화의 세 번째 단계는 나에게 있어 아버지로부터의 족쇄와
같았던 吃리에 대한 대항으로 파악된다.

나는 柏木를 통해 자신의 불구에 대해 체념하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자신
있게 더듬거리면서 말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나는 柏木와는 달리 아
버지로부터 부여받은 吃리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보다 그것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柏木の 통소를 매개로하여 나는 吃리를 극복하려 한다. 즉, 다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吃리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まだ出ぬ音は、この月に照らされた静寂の世界のどこかに、すでに確実に存在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た。私はさまざまな努力の果てにその音に到達し、その音を目覚めさせさえすればよかった。

(『金閣寺』第六章 p.148)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통소를 통해 「その音」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처음에 더듬거리면서 잘 나오진 않던 통소소리는 굵은 음을 내면서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決して美しい音ではない」⁶³⁾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세계에 속한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지만 吃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매끄러운 나의 고유한 소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매끄럽게 흘러나온 통소소리 통해 나는 「そのとき私は、わがものとも思われぬこの神秘的な声音から頭上の金銅の鳳凰の声を夢みていたのである」⁶⁴⁾라는 고백과 같이 금각을 벗어나려는 지붕위의 봉황처럼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난 나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각 방화의 네 번째 단계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공간인 절을 벗어나는 出奔 단계로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아버지의 세계는 절대적 세계인 것처럼 나를 억눌러왔지만 나는 그 절대성을 납득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出奔을 통해 아버지 세계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出奔은 「僕にはもう父親はおらん」⁶⁵⁾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내가 아버지의 세계를 부정함으로

63) 前掲注62, p.150

64) 注63과 동일

시작되어, 세상의 원초적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세계의 비 절대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보여진다.

다음에서는 出奔이라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내가 돌발적인 충동에 휩싸여 저지른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오랜 시간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산소에 가는 것을 계획했던 남자가 당일이 되어 역까지 가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친구 집에 가버리는 행위를 단순히 충동적이라 할 수 없는 오히려 아버지의 산소에 가는 준비보다 더 의식적인 자신의 의지에 대한 복수의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たとえば、父親の墓参りに行こうとして、前の晩から計画を立てていた男が、当日になって家を出て、駅の前まで来たときに、突然思い返して呑み友達の家へ行ってしまうような場合、彼を純粹に衝動的な男だと云えようか？彼のその突然の心変りは、それまでの永い墓参の準備よりもっと意識的な自分の意志に対する復讐の行為ではあるまいか？

(『金閣寺』第七章 p.183)

먼저 出奔의 첫 계기는 금각위에 내리는 눈을 보고 나는 눈을 왜 더듬거리지 않는 것일까 라고 금각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금각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단계까지 이르지만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반항의 마음은 그대로 생각만으로 머물러 버리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자, 세상의 원초적인 모습을 찾아 舞鶴湾으로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금각이 보이지 않는 美의 충칭이었다면 舞鶴湾은 「金閣はいたるところに現わ

65) 前掲注62. p.188

れ、しかもそれが現実に見えない点では、この土地における海とよく似ていた」⁶⁶⁾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 나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바다의 총칭이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舞鶴湾을 찾아 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금각과 같은 거대한 세계였던 舞鶴湾을 통해 아버지 세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함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내가 찾은 舞鶴湾은 다음과 같이 미군 병사들과 영어 교통표지 등으로 창녀의 배를 밟도록 용기를 주었던 제3 세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었다.

すべてが変っていた。そこは英語の交通標識がおびやかすように、そこかしこの街角に秀でている外国の港町になっていた。多くの米国兵が往来していた。

(『金閣寺』第七章 p.199)

즉, 어린 시절 나에게 있어 금각과 같은 절대적인 바다의 모습이 창녀의 배를 밟을 때 나를 지지했던 제3의 세계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금각의 세계가 영원성을 갖는 절대적인 세계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하며, 나아가 지금의 현실의 세상도 언젠가 제3의 세계와 같이 즉, 나를 지지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이러한 자신감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인공적인 바다가 아닌 바다의 본연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근원의 모습도 「うらかな春の午後も、よく刈り込まれた芝生」⁶⁷⁾ 와 같은 아버지의 세계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私の存在に親密なものであった」⁶⁸⁾ 나의 인생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황량

66) 前掲注62, p.6

67) 前掲注62. p.204

68) 注67과 동일

한 자연 그 자체였다.

それは正しく裏日本の海だった！私の不幸と暗い思想の源泉、私のあらゆる醜さと力のげんせんだった。海は荒れていた。波はつぎつぎとひまなく押し寄せ、今来る波と次の波との間に、なめらかな灰色の深淵をのぞかせた。(中略)すべてのものに動揺と不動と、たえず動いている暗い力と、鉱物のように凝結した感じとがあった。今私は波にむかい、荒い北風にむかっていた。うららかな春の午後も、よく刈り込まれた芝生もここにはなかった。しかしこの荒涼とした自然は、春の午さがりの芝生よりも、もっと私の心に媚び、私の存在に親密なものであった。ここで私は自足していた。私は何ものにも脅かされていなかった。

(『金閣寺』第七章 pp.203-204)

따라서 나는 거대한 세상의 근원에 자신의 세계가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일시적인 아버지의 세계와 달리 영원성을 띤 자신의 세계의 존재성과 부활의 자신감을 얻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나는 바다의 근원의 모습을 통해 나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한 후,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금각을 불태울 상념 「金閣を焼かなければならぬ」⁶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나는 방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마지막 단계인 금각의 방화를 결행하게 된다. 金閣寺의 창작노트에는 방화가 다음과 같이 <只一つのこるComplex>의 의미로 나타나 있다.

あらゆるComplexを解放した男が只一つのこるComplexから解放されんとして金閣寺に放火する。(人間最後のComplexの解放が必ず犯罪に終わるといふ悲劇)⁷⁰⁾

69) 前掲注62. p.205

그렇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콤플렉스가 해방된 시점을 찾아가보면, 금각의 방화를 결심 후, 유곽에 들어서 여성과의 관계가 성공을 거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他人はおそれもなく私の存在を犯し、その体温や安香水の匂いもろとも、少しずつ水嵩をまして浸水し、私を浸してしまった。私は他人の世界がこんな風に融けてしまうのはじめて見たのである。私は全く普遍的な単位の、一人の男として扱われていた。誰も私をそんな風に扱えるとは想像していなかった。私から吃りが脱ぎされ、醜さや貧しさが脱ぎ去られ、かくて脱衣のあとにも、数限ない脱衣が重ねられた。私はたしかに快感に到達していたが、その快感を味わっているのが私だとは信じられなかった。遠いところで、私を疎外している感覚が沸き立ち、やがて崩折れた。私は忽ち身を離して、額を枕にあてがい、冷えて痺れた頭の一部を、拳で軽く叩いた。それから、あらゆるものから置き去りにされたような感じに襲われたが、それも涙の出るほどではなかった。

(『金閣寺』第九章 p.244)

그런데 여기서 여성과의 관계가 성공을 거두며, 거의 모든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되지만 환상의 순간에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只一つのこの Complex>문제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위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극적인 순간에 나의 인생의 상징인 有為子를 생략하는 <有為子の留守>였다.

私の足がみちびかれるゆくとところに有為子はいる筈だった。とある四つ辻の角店に「大滝」という家があった。やみくもに私はそこの暖簾をくぐった。畳六帖ほど

70) 三好行雄『別冊国文学NO.9 三島由紀夫必携』, 学灯社, 1983, p. 7

のタイルを敷いた一間突先にあり、奥の腰掛けに三人の女が、まるで汽車を待ちくたびれたような風情で腰かけていた。一人は和服で、首に繻帯を巻いていた。洋服の一人はうつむいて、靴下をずり下ろして、腓のところをしきりに搔いていた。有為子は留守だった。その留守だったことが私を安心させた。

(『金閣寺』第九章 p.239)

나는 여기서 나의 고유한 인생(有為子)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함으로써 나의 인생에 대해 전면 부정하진 않고 있으나, 극적인 순간에 나의 인생을 빠뜨려, 나의 인생이 금각의 방해로 인해 또다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충동을 회피하려하고 있다. 즉, 「その留守だったことが私を安心させた」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인생이 금각에 의해 또다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며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有為子の 존재를 생략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나는 평상시 나의 인생에 대해 「私特製の、未聞の生がそのときはじまるだろう」와 같이 타인의 인생과 다른 독창성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유곽에 들렀을 때에는 이러한 나의 인생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自殺を決意した童貞の男が、その前に廓へ行くように、私も廓へ行くのである。安心するがいい。こういう男の行為は一つの書式に署名するようなもので、童貞を失っても、彼は決して「ちがう人間」などになりはしない。あのたびたびの挫折、女と私の間を金閣が遮りに来たあの挫折は、今度はもう怖れなくていい。私は何も夢みてはいず、女によって人生に参与しようなどとおもってはいないからだ。私の生はその彼方に確乎と定められ、それまでの私の行為は陰惨な手続きにすぎないからだ。私はそう自分に云い聞かせた。

(『金閣寺』第九章 p.235)

즉, 여기서 여성과의 관계가 첫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인생(有為子)를 빠뜨림으로 금각의 방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동안 실패했던 여성과의 관계가 첫 성공을 거둔 후에도 여전히 내가 금각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それから、あらゆるものから置き去りにされたような感じに襲われたが、それも涙の出るほどではなかった」⁷¹⁾의 고백처럼 그 기쁨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이 첫 성공이 결국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 왔던 핵심인 자신의 인생이 빠져버린 정면 승부의 결과가 아니었음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인공은 이러한 자신의 나약함을 이미 스스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나는 금각을 불태우기 전 유곽에서 나머지 모든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도 결국 극복하지 못한 것은 <有為子の留守> 였는데 여기서 <有為子の留守>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면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只一つのこるComplex>의 해방을 의미하는 금각의 방화는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금각 방화의 상념이 적어도 아버지를 따라 처음 금각을 본 날부터 내 몸 속에서 자라나, 개화를 기다리고 있었던듯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금각안의 간혀있는 모형금각과 같은 나의 인생을 인식한 후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를 온전히 벗어 나의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あんなに唐突にうまれた想念であったとはいえ、金閣を焼くという考えは、仕立卸しの洋服か何ぞのように、つくづくぴったりと私の身についた。生まれたときから、私はそれを志していたかのようだった。少なくとも父の伴われてはじめて金閣を見た

71)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社, 1995, p.244

日から、この考えは私の身内に育ち、開花を待っていた化のようだった。金閣が少年の目に世の常ならず美しく見えたというそのことに、やがて私が放火者になるもろもろの理由が備わっていた。

(『金閣寺』第八章 p.21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각 방화의 상념은 주인공의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밖으로 표출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후, 금각에 대한 방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용기를 얻게 되고 마지막 금각의 방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5. 手記의 의미

『金閣寺』는 작품의 마지막을 생략하더라도 금각의 방화의 결말을 예상할 수 있으나, 西本匡克⁷²⁾는 작자의 치밀한 계산아래 작품의 마지막까지 작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佐藤秀明 또한 사건이 종결된 후의 読み手を 의식한 手記⁷³⁾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작품 속의 語り手는 「考へてもらひたい」「察してもらひたい」「当然ではあるまいか」「かういふ少年は、たやすく想像されるように」 등과 같은 표현으로서 読み手を 의식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佐藤秀明은 『金閣寺』가 読み手を 상정한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手記>로서 쓰여져 있으며 「私の内界をいかに、外界に開くか」⁷⁴⁾에 주목하

72) 佐藤秀明 「シンポジウム『金閣寺』をめぐって」 『解釋と鑑賞』 57-9, 2000, p.173

73) 前掲注73, p.164

74) 前掲注73, p.168

여야 읽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金閣寺』의 <手記>는 読み手에게 자신의 논리를 피력하기 위해 쓰여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서술방식을 살펴볼 때에 手記가 어떠한 특별한 목적성을 가진 두 가지 상반된 서술 방식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1.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서술방식

『金閣寺』의 手記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서술방식으로 완성되고 있는데 먼저, 일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세계를 용감하게 방화하는 과정을 그리며 자신의 인생을 강조하고자 하는 서술방식 나타나고 있고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자신의 의지적이고 계획적인 방화의 행위를 부정하며 나약함의 호소로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려는 서술방식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서술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吃りで、無口な暴君で私があれば、家来どもは私の顔色をうかがって、ひねもすおびえて暮すことになるであろう。私は明確な滑りのよい言葉で、私の残虐を正当化する必要なんかないのだ。私の無言だけが、あらゆる残虐を正当化するのだ。私はまた内面世界の王者、しずかな諦観なみちた大芸術家になる空想をもたのしんだ。

(『金閣寺』第一章 p.7)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吃리라는 선천적 결함을 갖고 있었지만, 이 결함 자체는 외부와 내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외부의 세계 속에서는 吃리로 인해 스스로 열등감을 지닌 채 나약한 모습으로 그 吃리를

부끄러워하면서 수용하려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의 吃이라는 결합은 내면에서 그대로 수용되어 힘 있고 강한 나의 모습을 꿈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외면세계의 모습과 달리 나의 내면은 吃의 폭군 또는 위대한 예술가를 공상하면서 자신감과 우월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금각방화를 하게 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私はやはり金閣を焼かなければならぬ。別誂への、私特製の、未聞の生がそのときはじまるだろう」⁷⁵⁾와 같이 굉장한 프라이드를 나타낸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의 존재성을 강조하고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을 의도적으로 세워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佐藤秀明은 『金閣寺』에서의 증인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범죄계획자는 범죄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구축자가 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증인의 존재를 범죄의 측면에 주목해 해석하고 있다.

「証人」がいなければ犯罪は成立しないというのが、「私」の固定的な規制になっていて、犯行を否定しようとするときには、その状況がどうあろうと、「証人」のいないことを根拠にします。逆に、犯罪者たらんと欲するときには、意識的に「証人」をしつらえておくわけです。⁷⁶⁾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인은 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성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는 이 증인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세계에 갇혀 존재성이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인정받고, 또한 자신의 인생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용감한 모습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75)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1995, p.211

76) 佐藤秀明 「シンポジウム『金閣寺』をめぐる」 『解釈と鑑賞』 57-9, 2000, p.168

전쟁이 끝나기 전, 나는 鶴川와 함께 환상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환상의 장면은 한 남자 병사가 나의 인생으로 상징되는 「よみがえった有為子」의 젖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信じがたいことが起ったのはそのあとである。女は姿勢を正したまま、俄かに襟元をくつろげた。私の耳には固い帯裏から引き抜かれる絹の音がほとんどきこえた。白い胸があらわれた。私は息を呑んだ。女は白い豊かな乳房の片方を、あらわに自分の手で引き出した。

士官は深い暗い色の茶碗を挙げ持って、女の前へ膝行した。女は乳房を両手で揉むようにした。私はそれを見たとは云わないが、暗い茶碗の内側に泡立っている驚いろの茶の中へ、白いあたたかい乳がほとぼしり、滴りを残して納まるさま、静寂な茶のおもてがこの白い乳に濁って泡立つさまを、眼前に見るようにありありと感じたのである。男は茶碗をかかげ、そのふしぎな茶を飲み干した。女の白い胸もとは隠された。私たち二人は、背筋を強張らせてこれに見入った。

(『金閣寺』第二章 p.57)

그런데 이 장면은 「私はそれを見たとは云わないが」 라고 말하고는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나 나는 이 장면을 마치 실제의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환상의 장면에 다음과 같이 나 이외에 다른 목격자 鶴川를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다.

戦争末期の京都の、或る挿話が思い出される。それはほとんど信じがたいことであるが、目撃者は私一人ではない。私の傍らには鶴川がいたのである。

(『金閣寺』第二章 p.53)

그리고 다음과 같이 有為子が 살아 있다 라는 말을 할 때 심하게 더듬거

렸던 점을 통해 볼 때 나는 전쟁이 끝날 무렵 새롭게 부활할 나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대한 목격자를 설정함으로 나의 인생을 인정받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若い美しい女は端然と座っていて、その白い横顔は浮彫され、本当に生きている女かと疑われた。私は極度に吃って言った。

「あれは、一本、生きているんやろか」

「僕も今そう思っていたんだ。人形みたいだなあ」

と鶴川は勾欄にきつく胸を押しつけ、目を離さずに答えた。

(『金閣寺』第二章 p.56)

그런데 有為子は 나의 인생으로 상징되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는 有為子が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존재로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첫째는 나의 인생으로 상징되는 有為子이며, 두 번째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수치와 실패를 본 목격자 「私の恥の立会人」⁷⁷⁾ 有為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의 첫 실패의 목격자로서의 有為子は 죽는 것으로 설정하여 나의 인생의 실패의 증인을 없애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인생의 상징인 有為子は 환영으로서 영원성을 띄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부활을 상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私は有為子を呪い、その死をねがうようになり、数ヵ月後には、この呪いが成就した。爾来私は、人を呪うということに確信を抱いている。寝ても覚めても、私は有為子の死をねがった。私の恥の立会人が、消え去ってくれることをねがった。証人さえいなかったら、地上から恥は根絶されるであろう。

(『金閣寺』第一章 p.15)

77)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社, 1995, p.15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나의 인생의 수치를 목격한 有為子が 죽기를 수개월동안 바랬으며 결국 有為子の 존재를 죽는 것으로 설정하여 제거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금각에 불을 지르기 전 유곽에 들릴 때는 有為子を 나의 인생의 상징으로서 생각하며 「寺を出るときからこの一角に、私はなお有為子が生きていて、隠れ棲んでいるという空想にとらわれていた。空想は私を力づけた」 78)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有為子の 존재(나의 인생)가 살아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용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마지막 유곽에 들렀을 때도 장면에서도 금각의 출현 없이 세상과의 첫 접촉에 성공을 위해서는 有為子の 환영이 출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有為子の 존재를 없애야 했지만 나는 다음과 같이 有為子の 존재를 영원히 부정하지 않고 이 상황을 有為子 스스로 잠시 비워둔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영원한 有為子の 존재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暗い古い階段を二階へのぼるあいだ、私はまた有為子のことを考えていた。何かこの時間、この時間における世界を、彼女は留守にしていたのだという考えである。今ここに留守である以上、今どこを探しても、有為子はいないに相違なかった。彼女はわれわれの世界のそこの風呂屋かどこかへ、ちょっと入浴に出かけているらしかった。私には有為子は生前から、そういう二重の世界を自由に出入りしていたように思われる。

(『金閣寺』第九章 p.240)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手記의 일차적인 서술방식은 나의 인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화로 달려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자신의 인생이 독자적이

78) 前掲注77, p.236

며 우월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金閣寺』의 수기는 일차적인 서술방식과는 정반대 성격의 서술방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세계에 대항하는 방화에 단계를 살펴볼 때 각 단계마다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은 방화의 단계마다 자신의 인생에 우월감을 갖고, 의지적으로 아버지의 대항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행위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의지적 행위를 숨기며 나약함으로 호소하는 서술방식이 어김없이 뒤따라 첨가되고 있다. 즉, 주인공은 두 번째 서술방식을 통해 아버지의 <나약함의 힘>을 재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습의 기대를 할 때에도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과 달리 금각과 내가 함께 공동의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며, 창녀의 배를 밟는 사건에서도 주인공은 분명 감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강요된 행위였음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에 대항하는 단계에서도 자신이 바라지 않는 화해의 장면을 애써 연출하여 자신이 노사로 버림받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출분의 행위가 의식적인 복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에 의한 충동적 행위로 간주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서술방식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금각 앞에서 나약함의 호소로서 금각을 나에게 강요한 것과 같이, 자신의 방화의지를 나약함의 이면에 숨기고 아버지의 <나약함의 힘>을 재이용하여 자신의 뜻인 방화를 성취 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약함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두 번째 서술방식은 방화 후의 장면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화 후, 나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究竟頂에 가서 죽을 것을 결심하고 究竟頂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결국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든 순간 금각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清沢遥香는 이 장면에 대해 주인공이 누군가가 문을 열어 줄 것을 기대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父>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문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彼は彼の中の父親に最後まで受け容れられることはなかった」⁷⁹⁾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주인공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 나약한 아버지를 몰인정하게 버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자살을 생각해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私の頭がこのときはっきりと冴えた。燐寸の数には限りがある。今度は別の一角は別の一角に走って、一本の燐寸を大切に、別の藁の一束に火をつけた。燃え上る火は私を慰めた。かねて朋輩と焚火をするとき、私は火を起すのが巧かったのだ。(中略) 熱さはほとんど感じられなかった。賽銭箱に着実に火が移るのを見て、もう大丈夫だと私は思った。私はカルモチンや短刀を忘れていた。この火に包まれて究竟頂で死のうという考えが突然生じた。そして火から遁れて、窄い階段を駆け上った。潮音洞へ昇る扉がどうして開いたのかという疑いは起らない。老案内人が二階の戸締りを忘れていたのである。煙は私の背に迫っていた。咳きながら、恵心の作と謂われる観音像や、天人奏楽の天井画を見た。潮音洞にただよう煙は次第に充ちた。私は更に階を上って、究竟頂の扉を開けようとした。扉は開かない。三階の鍵は堅固にかかっている。私はその戸を叩いた。

(『金閣寺』第十章 pp.275-276)

79) 清沢遥香 「金閣に代わるものとしての手記-父親殺しの物語として」 『尾道大学日本文学論叢』, 2005, p.53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의 생각은 주인공이 금각의 방화 후, 기쁨과 감격을 만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떠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나에게 자살이라는 생각은 현 상황과 내면의 상태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하에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한 가지 절차에 불과 했기 때문에, 금각 방화 후, 잊고 있었던 자살을 갑작스럽게 생각해내게 된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読み手를 의식한 주인공의 이러한 퍼포먼스는 자살의 생각이 떠오른 후, 究竟頂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私は力の限り叩いた。手では足りなくなって、じかに体をぶつけた。扉は開かない。潮音洞はすでに煙に充たされていた。足下には火の爆ぜる音がひびいていた。私は煙に噓せ、ほとんど気を失いそうになった。咳き込みながら、なお戸を叩いた。扉は開かない。ある瞬間、拒まれているという確実な意識が私に生まれたとき、私はためらわなかった。ようやく西の扉に達して戸外へ飛び出した。それから私は、自らどこへ行くと知らずに、韋駄天のように駆けたのである。

(『金閣寺』第十章 p.277)

위에서 「潮音洞へ昇る扉がどうして開いたのかという疑いは起らない。老案内人が二階の戸締りを忘れていたのである」⁸⁰⁾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살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라기 보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문단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즉, 나는 究竟頂의 문을 두드리려 자살을 연출하려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절차만을 생각하면서 순차적으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상과 달리

80) 三島由紀夫 『金閣寺』, 新潮社, 1995, p.275

문단속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살기도의 생각은 주인공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멸망하고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주인공이 아버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몰인정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나약함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나는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려고 한 적 없이, 자신의 예상대로 이미 닫혀져 열리지 않을 究竟頂의 문을 두드림을 통해 결국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 속에서도 나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読み手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난 뒤에는 주저 없이 불길을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방화의 행위는 방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획된 자신의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가장하여 자신의 금각 방화에 대한 의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拒まれている」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이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닌 아버지가 나를 버린 행위를 연출하고 読み手에게 나약함의 호소로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다.

5.2. 読み手を 의식한 手記

『金閣寺』의 手記는 첫 번째 서술방식을 통해 나는 자신의 고유하고 우월한 인생을 강조하고 피력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두 번째 서술방식을 통해 자신의 용감한 행위를 부정하고 덮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상반된 두 번째 서술방식이 나타나게 된 것은 『金閣寺』의 手記가 読み手を 의식하고 쓰여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먼저 두 번째 서술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염두 해 볼 때 読み手란 주인공의 내면의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감출 수밖에 없을 만큼의 거대한 힘을 지닌 대상이어야만 하며, 또한 작품 속에서 금각의 방화 후에도 주인공에게 거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상이란 작품 속에서 방화 후 주인공이 맞부딪히게 되는 현실세상임을 생각할 수 있다.

전후의 현실세상이 자신이 무너뜨렸던 나약함의 세계인 아버지의 세계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약자인 아버지의 세계를 짓밟고 획득한 나의 인생은 흑독한 현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자신의 인생이 현실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手記의 두 번째 서술방식(아버지의 세계의 나약함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나약한 약자의 인생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 나는 아버지의 세계에 갇혀 있던 나의 인생을 부활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세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 과정을 <手記>의 첫 번째 서술방식을 통해 그리면서 나의 인생의 우월성과 존재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획득한 나의 인생은 다시 현실의 세상이라는 벽 앞에 다시 한 번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이 벽을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서 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나약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로서 <나약함의 힘>을 이용한 두 번째 서술

방식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金閣寺』의 두 가지 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세계를 극복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획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이차적 과제인 아버지의 세계를 보호하는 현실의 세상은 극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나는 아버지의 세계는 벗어났으나,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를 지지하는 현실에 의해 나약함의 세계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金閣寺』에 있어서는 내가 나약함의 세계 속에 무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 앞으로 언젠가는 극복하게 될 현실 세상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증인을 설정해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 手記를 통한 <生きよう>의 의미

佐藤秀明은 다음과 같이 범죄계획자는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범죄자의 논리는 더 이상 독자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사회의 규범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金閣寺』의 주인공의 경우는 이와 달리 방화 후, 자살도구를 버리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手記를 쓰게 되는데 이점에서 볼 때 주인공은 방화 후에도 사회적 규범에 자신의 논리가 침식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犯罪計画者、自己の論理を社会の風に当てないで、じっと独自の内に守っているはずなんです。しかし、それが達成すれば、犯罪者の論理は世界の中にさられてしまいます。ところが私は、犯罪を達成したところで、用意したカルモチンと小刀を谷底に投げて、「生きよう」と思います。そして、この犯罪までの出来事を手記として書くわけです。ということは、当然「私」の論理にも社会の規範が侵入したでしょうが、この計画が達成された後でも、自己の論理が侵食され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と思われれます。⁸¹⁾

81) 佐藤秀明 「シンポジウム 『金閣寺』をめぐって」 『解釈と鑑賞』 57-9, 2000, p.70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세계는 변화되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私が生きてこの手記を書くこと」⁸²⁾ 자체가 그 답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계가 변화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즉, 佐藤秀明은 주인공의 자살을 포기하고 살아남아 手記를 쓰는 것이 자신의 논리가 이 세상의 규범과 질서로부터 침식당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고유한 세계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金閣寺』의 手記는 두 가지의 성격의 서술방식으로서 완성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서술방식의 흐름에 따라 結語<生きよう>를 해석해 볼 때, 자신감과 우월감에 찬 서술방식의 흐름에 비해 結語의 의지인 호소가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약함을 가장하고 있는 서술방식의 연장선으로 볼 때도 마지막에 <生きよう>보다는 자살을 택하는 쪽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수기의 흐름에 있어서 마지막 結語<生きよう>는 다소 흐름과 동떨어진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佐藤秀明氏⁸³⁾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私」が求めているのが、世界の論理であるかぎり、「私」自身が破滅に向かわないのも当然であります。なぜならそれは、「私」と世界の論理であるのですから、それはつまり「私」を生かす論理であり、生の論理であるからです。

「私はたしかに生きるために金閣を焼かうとしてゐる」と記されるゆえんでもあります。しかし、計画が実行され、その後であっても「生きようと私は思った」と書かれた点については、しばし立ち止ま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82) 注81과 동일

83) 前掲注81, pp.69-70

따라서 마지막 結語〈生きよう〉는私の読み手を 의식하며 쓰여진 첫 번째 서술방식、두 번째 서술방식의 연장선상의 것이 아니라 手記를 끝내면서 読み手を 의식하지 않고 쓰여진 주인공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내면의 진실한 고백으로 보여 진다. 즉, 〈生きよう〉의 의미 속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술방식을 마무리 한 후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서술방식을 마무리한 후,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난 새로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서술방식을 마무리하면서는 현실 세상을 결국 뛰어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아버지의 〈나약함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의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인공은 결과적으로 현실세상의 벽에 부딪혀 나약함의 세계로 빠지고 있지만, 마지막 문장 「ト仕事を終えて一服している人がよくそう思うように、生きようと私は思った」⁸⁴⁾의 〈ト仕事を終えて〉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각의 방화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난 고유한 나의 인생을 찾는 하나의 큰 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인공의 고백 〈生きよう〉에는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난 자신만의 고유한 생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과 함께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현실의 벽이라는 거대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84)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社, 1995, p.278

Ⅲ. 결론

본고에서는 『金閣寺』를 金閣寺의 실제방화 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특별히 부각되어 설정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아버지를 중심으로 『金閣寺』를 새롭게 고찰해 보았다.

이전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금각의 전달자, 소개자에 한정시키며 친숙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반해 본고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초라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나약함의 힘>을 가진 존재로서 나의 인생을 차단시키고 자신의 세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해 오던 존재로 보고 있다. 즉, 아버지와 금각, お寺、吃¹⁾이라는 요소의 상관성을 밝힘을 통해 아버지가 이러한 요소를 통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차단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작품의 중심이 되는 금각 자체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먼저, 기존의 연구가 아버지에 주목하지 않고 금각과 나를 동일시하여 나의 내면으로부터 파생된 금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본고에서는 금각이 아버지로부터의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금각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를 낳게 된 원인은 이전의 연구가 아버지를 따라 실제금각을 본 날을 기점으로 하여 아버지와 나의 금각이 확연히 분리되는 이 분리 점과 주인공이 금각의 미를 인정하는 장면에서 아버지의 백골 손에 의한 <나약함의 힘>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의 표면상 주인공이 받아들인 금각의 美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美가 아닌,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나약함의 호소를 통해 일시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작품 속의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는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나약함의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약함의 힘>이 주인공의 내면까지를 간섭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현실 세상이 전후 아버지의 금각을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전후의 현실은 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실현될 기대와 꿈의 공간이었기에 이 현실세상이 아버지의 세계를 지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세계를 더 절대적이며 두려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세계는 전후 나타난 현실의 세상의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됨으로 나의 내면까지를 간섭하는 금각의 환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금각의 환영은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와 같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며 나의 용감한 인생을 가로막게 되고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약함의 세계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무력의 근원이자, 세상의 보호를 받으며 존속한다는 점,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다는 점에서 금각과 상응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각의 환영 속에는 <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금각이 아버지로 부터의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를 강요하며 나의 인생을 차단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각의 방화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 고유한 나의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화를 성공한 주인공이 결국 아버지의 세계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본고에서는 작품의 手記의 서술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金閣寺』의 手記는 자신의 인생을 강조하는 서술방식과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방화행위를 의지적인 행위가 아닌 수동적인 것으로

덮으려는 두 가지 서술방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 두 번째 서술방식이 아버지의 <나약함의 힘>을 재이용하고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즉, <手記>의 첫 번째 서술방식을 통해서 는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약한 아버지의 세계를 금각의 방화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서술방식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의지적 방화 행위를 숨기며 약자를 가장하여 <나약함의 힘>으로 아버지의 세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금각의 방화를 통해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서술방식을 통해 드러나듯이 아버지의 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이차적 난관인 현실의 세상 앞에서는 나약함의 세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나약함의 세계를 온전히 극복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금각을 불태워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한 후 유곽에 들렸을 때도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有為子를 빼버리는 것은 세상의 벽에 부딪혀 세상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나약함의 세계로 돌아가려 했던 것을 말해 준다.

『金閣寺』의 주인공이 지금까지 三島문학의 주인공과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구분되어 설정되었던 점도 이러한 두 번째 서술방식인 나약함의 호소를 위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주인공은 결과적으로 현실세상의 벽에 부딪혀 온전히 나약함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마지막 문장 「一ト仕事を終えて一服している人がよくそう思うように、生きようと私は思った」의 <一ト仕事を終えて>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각의 방화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 고유한 나의 인생을 찾는 하나의 큰 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인공의 고백 <生きよう>에는 금각방화를 통해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난 자신의 고유한 인생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한계를 직시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参考文献>

<텍스트>

三島由紀夫『金閣寺』. 新潮社. 1995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全集補卷1』. 新潮社. 1976

<단행본>

辻村彦次郎『三島由紀夫対談集—尚武のころ』. 日本教文社. 1960

山崎正夫『三島由紀夫における男色と天皇制』. 海燕書房. 1978

三好行雄 “『金閣寺』について”『三島由紀夫』. 角川書店. 1980

田中美代子『鑑賞日本現代文学—第23巻、三島由紀夫』. 角川書店. 1980

三好行雄『別冊国文学NO.9 三島由紀夫必携』. 学灯社. 1983

松本健一『三島由紀夫亡命伝説』. 河出書房新社. 1987

<간행물>

伊藤勝彦「三島由紀夫の思想構造」『解釈と鑑賞』第33巻 第10号. 至文堂, 1968

阿部正路「三島文学における時事的素材と作品様式」『解釈と鑑賞』第33巻 第10号.
至文堂, 1968

長谷川泉「三島作品事典」『解釈と鑑賞』第33巻 第10号. 至文堂. 1968

三好郁男「精神分析からみた三島文学」『解釈と鑑賞』第33巻 第10号. 至文堂. 1968

藤井哲史「暗黒斗 光輝—三島由紀夫『金閣寺』論」『コンバラティオ』1. 1997

吉田達志「美の召命—三島由紀夫『金閣寺』の世界」『静岡近代文学』9. 1994

芳川泰久 「拝啓、三島由紀夫様ー自由と符丁をめぐる」 『ユリイカ』 第32巻 14号.

2000

金美亨 「『金閣寺』における「美」についての考察」 『解釈と鑑賞』 65-1. 2000

湯浅博雄 「三島由紀夫『金閣寺』を読むー死の経験の二重性、＜永遠回帰＞の
両義性」 『国文学』 45. 2000

佐藤秀明 「シンポジウムー『金閣寺』をめぐる」 『解釈と鑑賞』 57-9. 2000

秋山公男 「『金閣寺』ー美の深淵」 『愛知大学文学論叢』 122. 2000

山原陸俊 「三島文学における＜内部＞と＜外部＞ー「金閣寺」を中心に」 『語文』 80
(大阪大学) . 2004

清沢遥香 「金閣に代わるものとしての手記ー父親殺しの物語として」

『尾道大学日本文学論叢』 . 2005

<단행본>

미시마유키오 『금각사』 허호 옮김. (주)웅진닷컴. 1995

<간행물>

강석원 「三島由紀夫の美学ー『金閣寺』を中心にして」 『日語日文学研究』
제3집 1호. 韓国日語日文学. 1982

김삼남 「三島由紀夫의 『金閣寺』에 대한 作品 분석 연구ー美와 滅亡의
一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95

황영진 「三島由紀夫にみられる女性コンプレクスと自滅」 『日語日文学』 제10집.
大韓日語日文学. 1998

허 호 「三島由紀夫의 自己改造ー미시마文学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日本思想』 제2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0

- 허 호 「三島由紀夫 『金閣寺』 論-有為子の変容-」 『日語日文学研究』 第40輯.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 허 호 「三島由紀夫 『金閣寺』 論-有為子の変容-」 『日語日文学研究』 第40輯.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 노세원 「『金閣寺』 論」 서해대학 논문집 제25집. 2002
- 장홍규 「三島由紀夫의 『金閣寺』 론」 『日本語文学』 第3輯. 韓国日本語大学會.
2002
- 심재민 「미시마유키오(三島由紀夫) 의 『긴카구지』 (金閣寺)의 주제론」.
『日本語文学』 第17輯. 한국일본어문학회. 2003
- 심재민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의 초중기작품 주제론」 『日語教育』 第25輯.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6

